

## 「원효 『대승기신론』의 위치부여」를 읽고

이병욱(고려대학교)

이 논문의 핵심주장은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가 『대승기신론소』의 주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원효사상연구에 많은 쟁점(爭點)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논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가설(假說)을 입증하는 데는 두 가지 난점(難點)이 존재한다. 하나는 소(疏)와 별기(別記)가 내용에서 볼 때 서로 상응하는 부분이 있고 이는 별기(別記)가 소(疏)를 다시 풀이한 것이라고 보기에 곤란한 대목이다. 또 하나는 “이 가운데 자세한 내용은 별기(別記)에서 말한 것과 같다”[於中委悉 如別記說也 (『한국불교전서』 1권, p.746)]는 표현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는 소(疏)와 별기(別記)가 저술되고, 그 뒤에 소(疏)에 추가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한 만약 이런 추론이 맞는 것이라면 왜 별기(別記)를 참조하라는 내용이 3회에 한정되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논평문에서는 자료1의 해석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1이 중관과 유식의 화해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자료1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대승기신론별기』가 『대

『대승기신론』보다 뒤에 작성되었다는 가설이 유력해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설은 그만큼 힘을 잃는다고 할 수 있다. 자료1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대승기신론』의 요점은 [어떠한 이론도] 세우지 않음이 없고, [어떠한 이론도] 깨뜨리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론』과 『십이문론』 등은 모든 집착을 깨뜨리고, 나아가 깨뜨린다는 이론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깨뜨리는 주체와 깨뜨리는 객체를 다시 인정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부정만 했을 뿐이요[往] 부정과 긍정을 겸비하지 못한[不徧] 논서이다. 그리고 예컨대 『유가론』과 『섭대승론』 등은 [가르침의] 깊고 낮은 것을 잘 세워서 가르침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서들은] 자기가 세운 이론을 버리지 못하는 못한다. 이것은 긍정하기만 하고[與], 부정하지는 못한[不奪] 논서이다. 그에 비해, 『대승기신론』은 지혜롭고 어질고, 현묘하고 넓은 논서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론도] 세우지 않음이 없지만, 다시 [모든 이론을] 인정한다. 여기서 다시 인정한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극치에 이르면 두루 인정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는 것은 긍정하는 것이 끝까지 이르게 되면 부정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승기신론』은 모든 논서의 우두머리이고, 모든 쟁론의 우열을 논하는 근본[評主]이다.<sup>1)</sup>

『대승기신론』이 모든 논서의 우두머리[是謂諸論之祖宗]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대승기신론』이 『중론』과 『유가론』 등의 논서에 비해 뛰어나다는 의미이지 중관학과와 유식학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중론』과 『유가론』 등의 표현이 중관학과와 유식학과를 대표하는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자료1에서는 그렇게 보아서는 곤란하다. 그 근거는 자료2에 있다. 자료2에서는 자료1에서 『대승기신론』이 주장함과 깨뜨림이 결핍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를 『대품반야경』에서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승기신론』이 『중론』과 『유가론』 등보다 뛰어난 이유는 주장함과 깨뜨림이 자유로운 데 있고, 그 근거는 『대품반야경』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자료1에서 『중론』과 『십이문론』이 중관학과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자료2에서 주장함과 깨뜨림이 자유로운 근거를 『대품반야경』에서 구할 수는 없다. 중관학파의 중심에 『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크게 보자면 ‘반야경’에도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2의 일

1) 『대승기신론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권, p.733중) “其爲論也 無所不立 無所不破 如中觀論 十二門論等 徧破諸執 亦破於破 而不還許能破所破 是謂往而不徧論也 其瑜伽論攝大乘等 通立深淺 判於法門 而不融遺自所立法 是謂與而不奪論也 今此論者 既智既仁 亦玄亦博 無不立而自遺 無不破而還許 而還許者 顯彼往者往極而徧立 而自遺者 明此與者窮與而奪 是謂諸論之祖宗 群諍之評主也.”

부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심진여문(心眞如門)에서 말한 이(理)는 진여(眞如)를 말하는 것이지만 [진여라는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토끼뿔과 거북이털과 같이] 아주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진여는] 부처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성(性)과 상(相)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며,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심진여문에서 진여와 실제(實際) 등의 이름을 임시로 지어 부른다. 이것은 『대품반야경』 등의 ‘반야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sup>2)</sup>

위 인용문에서 진여를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立]이고, 진여라고 말하지만 그 실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깨뜨리는 것[破]이다. 이처럼 주장하는 것과 그 주장을 깨뜨리는 것이 걸림 없으므로 진여와 실제 등의 이름을 임시로 지어서 부른다. 명칭을 붙인다는 점에서 보자면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임시라는 점에서 보자면 깨뜨리는 것이다.

또한, 자료3은 『대승기신론』과 『유가론』의 화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욱 범위를 좁혀서 8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조화시켰다고도 볼

2) 『대승기신론소기회본』 1권(『한국불교전서』 1권, p.742상) “眞如門中 所說理者 雖曰眞如 亦不可得 而亦非無 有佛無佛 性相常住 無有變異 不可破壞 於此門中 假立眞如實際等名 如大品等諸般若經所說.”

수 있다. 『유가론』에서는 8식이 생멸(生滅)한다고 하지만, 『대승기신론』에서는 불생멸(不生滅)과 생멸(生滅)의 두 부분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만약 이 부분을 『대승기신론』과 『유가론』의 화해라고 본다면, 자료1에서 『대승기신론』이 『중론』과 『유가론』보다 뛰어나다고 말한 것과는 모순된다.